

근세일본의 상인의 발전과 상가경영

이 덕 훈*

(e-mail: ldukhoon@hanmail.net)

目 次

1. 시작하는 말
 2. 본 연구의 과제
 3. 近世 상인의 출발과 무사계급
 4. 근세적상인의 경영발달과 參勤交代
 5. 에도시대의 상가와 비즈니스
 6. 끝맺는 말
-

1. 시작하는 말

1598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세키가하라 전투(関ヶ原の戦い)의 승리에 의해 패권을 잡아 에도(江戸: 지금의 東京)에 막부를 열었다. 막번(幕藩)체제의 특징인 병농분리와 상농분리에 의해 영주에 의한 가신단과 상공업자의 분리, 집중에 의해 근세도시의 원형이라고 할 조카마치(城下町)가 설치되어¹⁾ 領国經濟의 중심이 되었다.

조카마치는 1580년부터 1610년까지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는데 이와 함께 중앙도시의 3도가 형성되었다. 다시말하면 大坂(오사카) 京都(교토), 江戸(에도)등의 3대도시는 오사카는 년공미(年貢米)가 판매되는 전국시장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에도는 參勤交代등의 정치적중심지로서의 기능과 대소비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교토는 일본국왕(天皇)이 거주하는 곳으로 문화와 전통의 도시로서의

*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자(座)」의 독점을 폐지한 후 히데요시(秀吉)에 의해 城下町가 만들어져 각번의 城下町에서는 무사의 소비수요에 의해 상인사회가 자연히 형성되어졌다

기능으로 에도시대의 가치를 상징하는 도시였다.

우선 에도시대는 무사의 봉건적인 정치지배의 체제로 지역적으로 크고 작은 영주가 독립해 있던 유럽과는 달리 정치권력은 무사계급의 幕閣²⁾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유럽과 같은 자유 상인의 생성은 어려웠고 상인의 적극적인 투자의 대상도 제한되어 있었다. 또한 쇄국정책으로 인하여 대외무역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의 대량수요를 창출할 수 없었으며 국내시장도 주변의 농촌을 지배하거나 종속하기 위한 상업도시를 배출할 수가 없었다.

농공업의 생산이 상승되는 寬文-元祿期(1661년-1704년)가 되자 신흥 상인층이 大坂(오사카) 京都(쿄토) 江戸(에도)의 세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이시기에 도매업, 중매업, 소매업, 환전(兩替)업 등 상업, 금융의 분화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³⁾

元祿에서 享保(1704년-1745년)에 이르기까지 상업과 금융은 더욱 발달하여 도매상, 중매, 소매의 유통계통이 정비되고 데치(丁稚)제도로 불리는 전문사용인 제도가 강화되면서 본점, 분점, 지점, 본가, 별가 등을 갖춘 상가로 발전되어 家(이예)제도를 중심으로 가업으로 발전하여 전국적인 상품 유통 과정에서 대상가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本家, 別家 등은 전문경영자를 칭하는 番頭(반토)로 이어져 이는 명칭은 바뀌었지만 지금의 일본적 경영에서도 이어지는 연공서열제도와 종신고용제도의 하나로 간주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상술한 논제를 중심으로 전근대적 경영제도로 현대적인 시스템까지 이어졌다고 하는 에도시대의 商家의 의미와 상가의 행동양식, 그리고 상가의 경영제도의 발전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연구의 과제

1) 근세시대의 상인정신에 관한 선행연구

최근에는 공업화과정(Industrializing, Modernization)의 前 시대에 등장한 상인들의 기업가적 활동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前공업화시대(Pre-Industrial era) 또는 前근대화시대(Pre-Modernization era)의 상인정신의 역할과 변화 또한 기업가정신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⁴⁾.

2) 幕府의 閣僚를 말함.

3) 井原西鶴(1642 - 1693년)는 町人으로서 중요한 것은 가문이나 혈통이 아니고 화폐재산이라고 주장하며 寬文期에 보여준 신흥상인의 대두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近世(전근대화시대)의 상인정신, 또는 상인활동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연구로 나누어진다. 즉, 한시대의 상인 개인의 성공에 관한 연구와 한 시대의 전체 상인들에 관한 활동과 변화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진다. 근세의 상인을 기업가로 취급한 사람은 클레인(Klein)이 최초이다.⁵⁾ 그는 구리와 차를 독점한 네덜란드의 트립家を 독점 상인으로 취급하여 기업가로 취급하였다. 또한, 중국의 소금을 만드는 지공(自貢)지역의 상인 즉 중국의 전근대화시대의 지공상인의 성공이야기 와 17세기(1615-1753년) 영국의 가죽기업(Perry)의 성장⁶⁾ 18세기 (1765- 1800년) 미국의 메사추세츠주의 수입과 수출에서 성공한 두 상인가문 잭슨 가문과 리 가문(Jacksons and the Lees)의 정착 상인의 기업가적 변환⁷⁾ 즉, 상인의 기업가적발전에 관한 연구⁸⁾가 대표적이다. 이에 반해 한시대의 전체 상인들에 관한 연구는 17-18세기 상인자본 즉, 17세기 영국의 기업공동체 연구, 중국의 揚州(양저우) 의 소금 상인 관한 연구와 일본의 에도시대의 기업가활동 등 ⁹⁾ 과 근세초기 일본의 오사카의 쌀 도매상에 관한 연구 등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근세 일본에서의 상인들의 단체 즉 座(자)의 가부나카마(株仲間)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¹⁰⁾ 근세일본의 대표적도시인 오사카(大阪)¹¹⁾의 상인자본과 와 가나자와

-
- 4) Christos Kalantaridis, *Entrepreneurship Beyond the Entrepreneur: A Veblenian Approach*,. Committed To A Better Worldwide Understanding of the Smaller Business. Enterprise. 1998 ICSB Singapore Conference. Proceedings.
Franco Amatori, Andrea Colli. *Business History: Complexities and Comparisons*. London: Routledge, 2011. Franco Amatori, Andrea Colli, Nicola Crepax, *Entrepreneurs & Managers*, International Colloquium jointly organized with ASSI for the Centennial of University Bocconi PROGRAMME OF THE COLLOQUIUM 10-11 October, 2002.
- 5) Peter. Wolfgang. Klein, *De Trippen in de 17e Eeuw. Een studie over het Ondernemersgedrag op de Hollandse stapelmarkt*, Assen,1965.
- 6) Jacob Price, *Perry of London: A Family and a Firm on the Seaborne Frontier* (Harvard Historical Studies) Harvard University Press,1992.
- 7) Kenneth W. Porter, *The Jacksons and the Lees; Two Generations of Massachusetts Merchant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37.
- 8) 宮本又次・作道 洋太郎・森泰博 「近世初期の大阪における米穀流通－蔵屋敷研究の予備作業として－」 『大阪の研究』 第4巻. 清文堂. 1970, Madeleine Zelin, *The Merchants of Zigong: Industrial Entrepreneurship in Early Modern Chin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6.
- 9) Richard Grassby, *The Business Community of 17th century England*, Cambridge, 1995. Ho Ping-Ti. "The Salt Merchants of Yang-chou: A Study of Commercial Capital in Eighteenth-Century China,"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17: 130-168,1954. 宮本又次, 中川敬一郎 監修, 『江戸時代の企業者活動』, 日本経済新聞社, 1977.
- 10) Tetsuji Okazaki, 2004. "The Role of the Merchant Coalition in Pre-modern Japanese Economic Development: An Historical Institutional Analysis," CIRJE F- Series CIRJE-F-284, CIRJE, Faculty of Economics, University of Tokyo
- 11) James L. McClain, 'Wakita Osamu ,*Osaka: The Merchants' Capital of Early Modern Japan*,Cornell University Press 1999.作道洋太郎, 「近世大阪町人学の系譜と特質

(金沢)의 도시형성과 상인층에 초점을 둔 연구¹²⁾와 근세일본의 상인자본을 중심으로 한 조카마치(城下町)의 발달을 중심으로 한 도시사회의 연구¹³⁾와 센다이번(仙臺藩)¹⁴⁾을 중심으로 근세일본의 상인자본을 분석한 연구¹⁵⁾도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근세의 상인연구는 구미에서는 개인위주의 상인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일본에서는 시기와 지역을 중심으로 상인자본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근세일본경제의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도쿠가와(德川)시대에 고도로 발달한 상품유통이나 수공업의 각종제도의 연구의 경제사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근대일본경제의 기반을 이루었다고 하는 기업가정신과 관계있는 근세 상가의 경영사적 흐름인 경영제도가 어떠한 과정으로 발전되었는가에 대한 경영사적 연구가 한국에서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2) 본연구의 연구과제

일본의 막부체제하의 도시상인자본이나 상가연구는 일반적으로 經營史的 견해와 構造論的 견해의 두개의 연구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영사적인 견해는 일본 근세 상인의 자발적 행동을 중심으로 상업의 발전을 강조 하는 것이며¹⁶⁾ 구조론적 견해는 막부체제경제구조의 유지라는 점에 상인을 위치함으로써 막부권력과의 공생관계¹⁷⁾를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은 막부의 전국적 체제하에 상인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결의 시점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가정신과 관계있는 개별자본의 발전과 흐름을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결점이 있다.¹⁸⁾

:懷徳堂学の再興」, 『大阪大学史紀要』, 1981.

12) 深井 甚三 『近世地方都市と町人』 (吉川弘文館) 1995.

13) 彬森玲子, 『近世日本の商人と都市社会』, 東京大学出版会 2006. 羽仁五郎, 『都市の論理 歴史的條件』, 勁草書房. 1968.

14) 仙臺藩은 에도시대에는 현재의 미야기현(宮城県) 전역과 이와테현(岩手県) 남부와 후쿠시마현(福島県) 일부(新地町)를 포함한 현으로 다테한(伊達藩) 이라고도 한다. 봉록은 62万石에 해당된다.

15) 박경수, 「일본 근세 상인자본의 연구」, 『일본역사연구제3집』, 일본역사연구회, 1996년3월.

16) 脇田晴子 日本中世商業發達史の研究 御茶の水書房 1969, Tetsuji Okazaki, 2004. "The Role of the Merchant Coalition in Pre-modern Japanese Economic Development: An Historical Institutional Analysis," CIRJE F- Series CIRJE-F-284, CIRJE, Faculty of Economics, University of Tokyo. 落合功 「享保期における都市の変容と問屋仲間—大坂塩問屋仲間を中心として—」 (藤野保先生還暦記念会編 『近世日本の社会と流通』 1993年, 雄山閣,

17) 松島 栄一, 北島正元編著 「江戸商業と伊勢店—木綿問屋長谷川家の経営を中心として—」 『日本歴史』, (168), 1962-06, 吉川弘文館. Avner Grief, "Contract Enforceability and Economic Institutions in Early Trade: The Maghribi Traders' Coali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3(3), 1993. June, pp. 525-48.

18) 伊東 弥之助, 「両組木綿問屋仲間の成立過程より見たる初期の江戸商業組織」, 『三田学会雑誌』 43(4), 48-62, 1950-04, 慶応義塾経済学会.

다시 말하면 경영사의 주요연구대상은 상인의 경영행동 즉, 일정의 사회경제적 조건 하에 전개되어진 상인의 의사결정이나 이것을 기초로 한 경영행동이지만 사회경제적 조건이 같아도 기업경영행동이 다르다는 것 역시 경영사의 독창성으로 볼 수 있다.

경영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라스(N.S .B. Gras)는 미국 미니아폴리스(Minneapolis)의 市場역사를 연구하던 중 시장에서 일어난 많은 현상은 조직이나 기구의 개관적 조건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개개의 상인은 반드시 경제법칙으로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경영사의 연구는 시장조건이나 기업형태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위에서 행동하는 상인의 입체적기능이 중요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⁹⁾

다시 말하면 회사, 상인을 경제이론이나 전통적 경영학의 이론에 얽매어 두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기업, 움직이는 商人(경영자)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서 경영사적 연구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상술한 논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상인(경영자)의 실체를 중심으로 근세상가의 상가경영에 관한 연구이므로 개별 자본이 중심이 되고 있는 상가경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근세일본 상인의 출발과 관계가 있는 라쿠이치 라쿠자(樂市樂座), 조카마치(城下町), 산킨코타이(参勤交代) 등을 분석하여 논제를 전개하고 일본적 특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分家 와 別家등 의제적 동족단을 중심으로 상가경영을 고찰하기로 한다.

3. 근세 상인의 출발과 무사계급

1) 근세 상인의 출발과 라쿠이치 라쿠자의 등장

근세 상인의 출발점으로 인식되는 라쿠이치 라쿠자 (樂市樂座)는, 일본의 근세 (16세기부터 18세기경) 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織豊정권과 각지의 전국 다이묘에 의해 조카마치(城下町)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진 경제정책이다. 樂市습에서의 라쿠(樂)라는 것은 규제가 완화되어 자유스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 이다.

기존의 독점판매권 인 非과세권과 불입권등의 특권을 가진 상공업자 (市座間屋등) 를 배제하여(free guild) 자유거래시장(free market)을 만들어 座(자)를

19) N.S.B. Gras, Business and Capitalism: An Introduction to Business History, Beard Books,2003.N.S.B. Gras, An Introduction to Economic History ,BiblioBazaar.2010. 作道洋太郎 外, 『日本經營史』, ミネルヴァ書房,1986年, pp 2-4.를 참고할 것.

해산시켰다.²⁰⁾ 중세의 경제적 이익은 座·問丸·株仲間(가부나카마)²¹⁾에 의해 독점되어 기득권화하였지만 노부나가는 이것을 배제하여 절대적인 영주권의 확립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세금의 감면을 통하여 신흥 상공업자를 육성하여 경제 활성화를 꾀하였다.

(1) 円徳寺의 세이사츠 와 樂市樂座

라쿠이치 라쿠자(樂市樂座)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현재 일본의 시가현(滋賀縣)의 일부에 해당되는 오미국(近江國)의 롯가쿠사다요리(六角定頼)가 1549년에 본인이 거주하는 觀音寺城의 조카마치인 이시테라(石寺)에 樂市令을 선포한 것이 일본 역사상 최초로 보고 있다.²²⁾

또한, 1565년에 현재의 시즈오카현(靜岡縣)의 중부지역에 해당하는 스루가(駿河國)의 이마가와 우지자네(今川氏真)의 후지오미야(富士大宮: 현재의 富士宮市)의 라쿠이치(富士大宮樂市)도 「今川氏眞朱印狀」에 「富士大宮毎月六度市之事」라는 글이 있는 것을 보면 매월 6번의 자유시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安野真幸의 분석으로는 富士大宮樂市는 노부나가의 이후의 다이묘에 의한 樂市令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²³⁾

그러나 법령의 공포에 해당되는 세이사츠(制札)²⁴⁾로서 라쿠이치(樂市) 및 라쿠이치 라쿠자(樂市樂座)의 語句가 확인된 것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처음이며, 六角氏나 今川氏は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라쿠이치의 어구가 확인된 것뿐이며, 제도로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부나가가 제도로서 처음으로 공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노부나가 가 발표한 樂市樂座는 자신의 영토인 美濃國·加納·近江國·安土町·近江國·金森(守山市) 등의 지역에 樂市樂座令을 대규모적으로 선포했을 뿐 아니라 노부나가의 영토인 일본의 1/4 지역에 해당하는 자기領地하의 각 다이묘들에게도 하달되어 각 지역의 조카마치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라쿠이치 라쿠자(樂市樂座)가 전국으로 빨리 퍼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엔토구지(円徳寺)에 소장된 문서를 보면 노부나가의 手決이 표시된 자료로

20) John W Hall, Nagahara Keiji and Kozo Yamamura, Japan Before Tokugawa,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p.359-361

21) 가부나카마는 問屋등이 일종의 座를 만들어,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다.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았다.

22) 이덕훈, 「중세일본의 상인의 등장과 樂市樂座」, 『일본문화학보』, 제56집, p353, 2013년 2월 한국일본문화학회.

23) 安野真幸, 『樂市論—初期信長の流通政策』, 法政大学出版局, 2009년

24) 세이사츠(制札)라는 것은 금령·법규등을 개조서(箇条書)에 기록해서 길거리나 절, 사원 등의 경내등에 붙여놓는 글귀

1567년에는 라쿠이치(樂市)만 25) 인정했으며 1568년 9월에 모든 거래는 樂市樂座하에 이루어지며 강매, 난폭행위, 싸움, 말싸움 등을 금지하며 어떠한 임시과세도 금지한다고 적혀있어²⁶⁾ 자유 시장에 대한 그의 노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획기적 사건으로 상업이 발달하여 에도시기에는 이미 중간 도매업자(問屋)가 등장하는 등 상인과 수와 상점의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많은 상품이 암시장에 등장하였을 정도라고 한다.²⁷⁾

최근에는 근세일본의 시장을 중세서구의 자유시장과 비교하여 樂市樂座를 과소평가하는 논제, 즉 상인에 의한 자치를 인정하면서도 상인자치의 책임자인 쇼닌스카사(商人司)²⁸⁾를 다이묘가 임명하기 때문에 다이묘의 정책 하에 樂市樂座가 이루어지므로 시장이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을 것 이라는 비판도 있다.²⁹⁾ 그러나 같은 시기의 중국과 조선에는 이러한 제도 자체가 없었으므로 라쿠이치 라쿠자 는 봉건체제하에서 상업에 대한 억압을 풀었다는 것 만 으로서도 자유 시장, 자유 상업도시로 이어지는 엄청난 사회적 변천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조카마치 (城下町) 의 성립과 점포상인의 등장

일본의 근세도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조카마치(城下町)의 성립은 전국시대(戰國時代)로부터 시작되지만 조카마치는 성의 방위시설로서의 기능은 물론, 행정도시·상업도시로서의 기능을 포함한다.³⁰⁾ 일본근세의 조카마치 발전은 노부나가로 부터 시작되면서 병농분리를 의도하여 무사를 성 밑으로 집주시킴과 동시에 樂市樂座를 설치하여³¹⁾ 상공업의 발달을 활발하게 하였다. 실제로 아즈치성(安土城)을 보았다고 하는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Luis Frois)에 의하면 아즈치성의 조카마치에는 무사가 약 2000명, 상인이 약 7,000명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조카마치를 더욱 발전시킨 사람은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었으며 토요토미 정권 의 정치경제의 중심이 되었던 오사카(大坂)의 조카마치는 부의 집적지가 되었으며 에도시대에도 오사카는 상업의 중심지이며 천하의 부역으로 불릴 정도로 상품의 집산지이기도 하였다.³²⁾

25) 發給者, 織田信長 永祿十年十月,宛所, 樂市場,所藏者,門徳寺 來住者分国往還保護、借錢·借米·地子·諸役免許、押買·狼藉·喧嘩·口論、理不尽之使、宿執非分停止

26) 宛所, 加納,所藏者, 永祿11年,門徳寺, 当市場越居之輩の分国往還保障、借錢借米諸役免許、樂市樂座之上商売、押買·狼藉·喧嘩口論停止、使不入、宿取り非分停止

27) 宇佐美隆之, 『日本中世の流通と商業』 吉川弘文館、1999年

28) 쇼닌스카사(商人司)는 쇼닌가시라(商人頭)라고도 불리며 전국시대부터 에도시대 전기에 걸쳐서 다이묘들의 조카마치에서 상인들의 통솔, 타지방상인의 검문, 5일장 등의 정기시 등을 개최, 흥행을 이루었다.

29) 安野真幸, 『樂市論—初期信長の流通政策』 法政大学出版局.2009年

30) 脇田修 『織田信長—中世最後の覇者』, 中央公論社.1987年6月, pp72-77

31) 池享, 『日本の時代史 (13) 天下統一と朝鮮侵略』 吉川弘文館.2003年6月을 참고할 것.

히데요시는 오사카에 많은 상인을 불러들여 상업의 중심지답게 조카마치를 열어 상업을 발전시켰는데 이러한 구상은 도쿠가와와 에도막부에도 계승되었으며 각변의 조카마치 에서는 무사의 소비수요에 맞추기 위해 상인사회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도시상인들은 년공미 뿐이 아니라 각지의 산물의 수송과 판매에도 종사 하였다.

조카마치(城下町)를 건설 할 때 영주는 여러 가지의 유인책을 강구 했다. 예를 들면 주택토지의 무상교부, 토지세의 면세, 라쿠이치 라쿠자(樂市樂座)에 의한 거래의 자유의 보장등 이라고 할 수 있다.³²⁾ 근세봉건도시 즉, 조카마치 의 성격은 조카마치의 상공인의 町屋가 성의 외곽에 둘러 싸여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조카마치는 원래 봉건제도의 필수 요소로서 봉건영주의 정치적경제적 힘에 의해 발탁되어 성의 외곽에 의해 둘러싸이고 보호되어 성주와 상인과의 관계는 운명을 함께 하는 운명공동체로서 중세의 무사계급의 보호아래 발전되는 형태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³⁴⁾ 甲斐国誌³⁵⁾에 의하면 1813년(文化10년)경의 甲府市街의 직인분포는 다음과 같다(표1참조).

(표1) 甲府市街의 직인분포

大工	工町 9호 (다른26개 정과 촌에 거주하는자 59호)
鍛冶屋 ³⁶⁾	鍛冶町 7호 (동 5호)
桶大工 ³⁷⁾	桶屋町40호(동 0호)
桧物師 ³⁸⁾	工町 55호 (동1호)
畳屋(다다미야)	다다미町 6호(동6호)
紺屋 (곤야)	新紺屋町 43호 (동24호)
研師	細工町 17호(동5호)
革師	細工町 21호(동4호)
金具師	細工町 11호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한 마을이 동일직종의 사람으로 형성되지 않고 다른 마을에 가서 살기도 하였으나 대개는 상술한 형태로 유지 되어 왔다고 하겠다.

조카마치의 계층적 유형적 구조는 무사계급의 생활의 구조이며 사무라이 정신의 품

32) 이덕훈, 「중세일본의 상인의 등장과 樂市樂座」, p354

33) 宮本又次, 『概説日本商業史』, 大原新生社, 1971, pp47-52

34) 石田 一良, 「町人文化一元禄・文化・文政時代の文化について」, 『日本歴史新書』, 1961年, pp19-23

35) 『甲斐国誌』, 松平定能, 1814年 (文化11)

36) 대장장이

37) 오케다이쿠 는 나무양동이를 만드는 목수를 말한다.

38) 히모노는 노송나무, 삼나무 등의 얇은 판자를 구부려서 만든 그릇이고 히모노시는 이를 만드는 장인

경이며 복종의 계층적 유형적 구조를 나타내는 것 이었다.³⁹⁾

조카마치(城下町)가 무사의 소비에 의존했다는 것은 도시 내의 인구구성의 비율에서 나타나는데 무사의 인구가 상인의 인구보다 훨씬 많다는 점에 있다. 大垣藩(오가키 번)⁴⁰⁾의 인구구성 비율을 보면 상인의 수는 1721년(享保6년)에 5,543명, 1786년(天明5년)5,343명, 1800년(寛政12년) 5,456명, 1838년(天保8년) 5,522명, 1870년(明治3년) 5,508 명으로 약 150년을 통해서 상인의 수를 보면 약 5,400명에서 약 5,500명 정도로 보면 된다. 이 숫자는 150년 전의 상인과 비교해 봐도 그다지 숫자의 증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비해 오가키 번의 무사의 인구는 1869년(明治2년)에 무사계급이 1,652명 과 가족의 수를 합하면 4,167명으로 합계 5,819명 (1870년은 5,755명), 그리고 지사와 가족, 시너까지 합치면 64명, 중간계급과 가족 수 986명, 종복과 하인 등을 합하면 383명을 합하면 총합계 7,233명이 된다.

그리고 오가키 번의 1869년의 서민의 숫자는 71,236명 그중 농민의 수가 65,726명 즉, 약 6만6천명의 농민이 약 5,800명 정도의 무사계급과 종자를 합해서 7,000명 정도를 부양하고 무사계급의 소비에 의존해서 5,500명의 상인이 기생했다고 보고 있다.⁴¹⁾ 이것을 보더라도 조카마치의 상인은 길드적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근세 조카마치의 도시적 성격은 무사계급의 소비의 방법에 의해 시장의 성패가 달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근세적 상인의 경영발달과 参勤交代

1) 막번제와 商人

에도시대의 특징은 간단하게 무사중심의 막번제(幕藩制)로 요약 할 수 있다. 막번제란 쇼군(將軍)을 정점으로 하여 다이묘(大名), 가신(家臣), 하타모토(旗本) 등의 무사계급이 전국의 토지를 영유하고 그 밑에 農 工 商 등의 서민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체제를 말한다.

막번체제의 질서제도는 오다 정권과 토요토미 정권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한 통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타이코젠치(太閤檢地, 전국적 토지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무사체제기반을 확립시켰다.

인구의 겨우 7%에 지나지 않는 무사계급이 전국을 지배하기 때문에 84%의 농민과 6%의 상공업자간의 身分的分化를 조장하여 생산의 분업을 초래하였다. 무사계급은 물

39) 吉田信之氏 「城下町の構造と展開」 『都市社会史』 山川出版社,2001,pp43-55

40) 현재의 기후현(岐阜県) 오가키시(大垣市)지역의 번

41) 石田 一良, 전게서,pp17-18

적 생산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농민과 상공업자로부터 조달하여야만 했다. 또한 상공업자는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산물을 구입하여야 했으며, 농민은 농업 외에 수공업제품을 생산하여 기본적으로는 자급자족하였지만 소금, 술, 초 등의 비자급자물자나 생산용구는 사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막번제 사회에서는 농촌과 도시와의 상품, 유통이 필연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상품과 화폐경제는 막번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중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품유통의 발전에는 식량생산에 하지 않는 군사행정 담당자로서의 무사계급은 제외하더라도 제2차 산업과 제3차 산업에 종사하는 상공업자의 대량출현으로 인하여 상업생산력의 향상을 의미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⁴²⁾

1547년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農商分離에 의해 백성이 도시로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농촌에서는 상인이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여, 농촌의 상인은 도시에 모이게 되어 町人(職人과 商人)이 되고, 이것이 농상분리가 되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1591년 히데요시는 오다와라(小田原)평정시에 農工商의 신분을 확립시키기 위해 武家奉公인이 백성, 町人이 되는 것을 금지, 또는 백성이 町人이 되는 것을 금했는데, 이 신분제는 도쿠가와 幕藩制의 확립과 함께 더욱 확고하게 발전하였다.

노부나가 가 중세이후의 座의 독점을 폐지한 후에 히데요시는 오사카에 상인을 불러 들여 일본의 상업의 중심지답게 조카마치(城下町)을 열었는데, 이러한 구상은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 계승되었다. 또, 각 번의 조카마치에서는 무사의 소비수요와 신흥 서민사회를 위한 町人(상인)사회가 형성되었다.

특히, 도쿠가와 정권의 성립과 함께 통일화폐의 주조에 따른 화폐제도의 정비, 교통도로의 완비 등을 기반으로 상품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부정기 시장에서, 定期시장, 그리고, 점포상업으로 年功運搬, 금융 등 포괄적 기능을 갖춘 도매상인, 환전상인, 소매상인에로의 상업의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그 담당자로의 상인자본, 특히 상품취급자본의 발전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리고 막번제의 특징인 무가정치 또는 사농공상으로 불리는 체제가 무사계급의 지배를 중심으로 한 신분질서의 확립을 의미하였으며 사농공상의 사민제도의 신분적질서의 특징은 상인이 최하위에 위치되었다는 점이다. 무사가 정치적 역할과 공적책임을 갖은 상위의 지배계급이 되면서 공(公)을 위한 의(義)와 사(私)적인 이익이 상반되는 형식적 관념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생활하는 상인이 최저의 계급으로 위치 지어졌다

42) 일본의 에도시대에 해당하는 유럽은 이미 절대주의의 단계에 있었으며, 일본은 다른 동양제국과 마찬가지로 織田 豊臣(오다 토요토미)政權 및 德川(도쿠가와)幕藩体制의 成立에 의한 봉건재편성의 과정에 있었고 상품경제, 화폐경제도 이 과정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유럽은 절대주의적인 세계식민지 쟁탈의 와중에 있었고 세계시장은 상품경제, 화폐경제로의 발전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德川幕藩体制도 이 世界史의 기류에 방관만 할 수는 없었고, 더욱 더 발전하는 상품경제·화폐경제에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의 담당자로서 등장한 것이 町人(商人)이었다.

는 것은 당시로서는 당연한 흐름이었다.⁴³⁾ 그러나 무사중심의 신분의 차별을 제도화 함으로서 막번제는 신분적 지배질서의 강화에 힘썼지만 막부나 각번들도 상품경제의 발전을 인위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었다는 점이다.⁴⁴⁾ 막부나 각번들도 상품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 상품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신분질서와는 점점 거리가 먼 새로운 관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상인은 급속히 부를 축적하면서 무사처럼 금욕주의적 인생관에 속박되지 않고 사치스럽게 생활을 하여 17세기 말 에도에는 다이묘와 사치를 경쟁하는 자 까지 나타나기도 하였다. 에도상인이 사치생활을 향수한 겐로쿠시대(1688-1704년)가 끝나고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의 치정(1716-1745)하에서는 농업을 기본으로 한 검소한생활로 가기 위한 교호(享保)의 개혁이 추진되어 엄격한 유교적 윤리로 질서와 검소한 사회를 이루었다. 하지만, 18세기가 되자 다이묘의 수입은 감소하고 반대로 상인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상인들의 세력이 커지게 되었다. ⁴⁵⁾

2) 參勤交代 와 도매상(톤야)의 등장

근세전기에 출현한 상가 경영은 미즈이, 고노이케 이토(마즈자카야)등을 대표로서 존속했으며 현대까지 존속하는 재벌들이다. 에도시대에는 이시다카(石高)제라는 쌀의 상품화를 기반으로 한 사회이며 도시에는 대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한 사회였다. 도시에는 농촌, 산촌, 어촌과의 교환 없이는 성립되지 않았다. 즉, 에도시대에는 상품교환을 구조적으로 예정한 사회이기도 하였다.

자급자족의 지역이 있었다고는 하나 년공미의 매각(상품화)에 의해 무사계급과 상공업자의 생존이 지탱되었기 때문에 상품경제를 구조적으로 도입한 사회였다. 물론, 쌀 소비의 경제⁴⁶⁾로 명명한 학자는 本庄栄次郎(1940)이지만 이 정의를 다시 상기하자면 쌀을 매매하는 사회, 또는 쌀을 상품화하는 사회라는 의미이며 宮本又郎(1988)는 쌀 시장경제⁴⁷⁾로도 사용하였다.

에도시대의 도시화를 촉진한 것은 參勤交代(산킨코타이)의 제도였다. 산킨(參勤)은 에도막부의 쇼군에 출사하러감과 동시에 코타이(交代)는 휴가를 얻어 영지에 돌아가서 정무를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번의 다이묘가 정기적으로 에도에 근무하러 가면서 각번의 재정적 부담을 줄과 동시에 반란을 막기 위한 인질을 취하기 위한 에도막부의

43) J.ヒルシュマイヤー, 由井 常彦, 『日本の経営発展—近代化と企業経営, 東洋經濟新報社』, 1986, p54

44) 大谷瑞郎, 『幕藩体制と明治維新, 亜紀書房』, 1973年, pp80-82

45) 이부분은 이덕훈(1993). 「江戸시대의 상인발달과 상인정신에 관한 연구」 『한일경상논집』, 제9권. 한일경상학회, pp189-206을 참고할 것.

46) 本庄栄次郎 「米遣いの經濟」, 『日本經濟史辞典』, 日本評論社, 1940

47) 宮本 又郎, 『近世日本の市場經濟—大坂米市場分析』, 有斐閣, 1988

제도이다. 이제도에 의해 각번은 에도막부에 반기를 들기가 어렵게 되었다.

막부는 강력한 지방정권을 감시하는 제도였던 參勤交代를 통해 다이묘를 에도에 집중시키게 하였으며 지방정권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參勤交代에 의해 지방정권의 힘을 상실시키는 것은 할 수 있었다. 다이묘들은 參勤交代비용으로 인해 재정이 약해졌다. 사가번(佐賀藩)에서는 1599년 장입미의 35%, 1604년에는 지출미의 47%가 參勤交代의 경비였다. 하기번(萩藩)도 1632년부터 1636년의 5년간의 지출액의 60%가 에도, 교토, 오사카에서의 경비였다.⁴⁸⁾

일본의 전국 270여개의 번에서 이루어진 다액의 경비지출은 소위 에도, 교토, 오사카의 三都에 의한 수요를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수륙교통로의 정비를 촉진시켜 숙박도시와 항구도시의 번영을 가져다주었다. 한편, 다이묘의 조카마치(城下町)에서는 가신단이 집중하여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였다.

즉, 막번제란 병농분리에 의한 무사단의 조카마치의 집단거주와 상농분리에 의한 상공업자의 조카마치의 집단거주를 초래하여 參勤交代는 에도뿐만이 아닌 교토, 오사카에의 인구집중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커다란 수요가 창출되어 대량의 상품이 생산되어 매매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관여하는 상인의 경영이 대규모화하는 기회를 주어 대상점경영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공업에 대해서는 기술이 수공업적이며 대작업장을 만들어도 생산효율을 상승시킬 수단이 없었으므로 대규모경영은 광산업, 조선업, 양조업등 한정된 업종만 큰 규모를 이룰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작업장은 거의 내부청부제가 이루어져 작업장의 오너가 다수의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야가타(親方)제, 소작제등이 등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천황이 살고 있는 지역인 오사카, 교토 등의 上方(카미가타)에서는 토이야로 불리고 쇼군이 거주하는 현재의 동경지역인 에도에서는 톨야로 불렸다. 에도시대 이후 일반화된 도매상(卸売)의 호칭으로 중세의 問(토이) 問丸(토이마루), 津屋(츠야)의 계보를 잇는다. 중세에서는 問, 問丸등은 상품 취급업, 운송업, 창고업이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에도시대가 되면서 경제적분화가 이루어져 톨야(問屋)는 주로 상품취급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에도시대의 유통조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⁴⁹⁾

본래 톨야는 하주로부터 위탁을 받은 화물(상품)을 중매인에게 팔아치우는 것을 본업으로 하였다. 이런 종류의 톨야는 니우케 토이야(荷受問屋)로 불렸으며 화물을 자기 계산으로 매입하여 소매상에 파는 중매인으로 截然(세츠젠)과 구별되었다. 상품에 따라서는 荷主와 問屋의 사이에 중매인이, 問屋와 仲買人과의 사이에 牙(스아이), 鳶(토비)로 불리는 중매인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니우케 토이야는 어느 특징의 지역의 여러 가지의 상품을 독점으로 취급하는 다이묘의 도매상이 등이 많았고 오사카

48) 中部よ子, 『近世都市社会經濟史 研究』 晃洋書房, 1974, pp48-49

49) 이덕훈(1993). 「江戸시대의 상인발달과 상인정신에 관한 연구」 pp194-199.

에 성립된 薩摩 (사츠마) 툰야·土佐(토사)툰야 등 의 지역, 지방 툰야 등 이 유명하다.

5. 에도시대의 상가와 비즈니스

1) 근세사회와 거대상가의 등장

근세도시사회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상점경영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이며 거대상가는 이시기에는 매우 특수한 존재였다. 중세 상인의 경우 도시에서 등장하는 소매점의 주인공은 가족중심의 소상공인이며 그들의 중심무대는 한정된 시장이었다.

그러나 거대상가는 경영의 대규모뿐 아니라 경영제도의 고도화도 이어져, 이익이 많이 나는 포목점과 금융업에 진출했다는 점과 가족뿐만 아니고 동족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이 하다고 하겠다. 일본근세의 중심이 되는 조카마치(城下町)와 町과 村은 무사계급이 중심이 된 근세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조직이며 가족과 집, 그리고 상공업에 종사하는 상인(町人)은 소상공인이 중심이 된 지연적 공동체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거대점포를 중심으로 하는 거상의 출현은 町과 村을 뛰어넘어 일본의 전 지역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여기에서의 상가, 즉, 상인사회에서의 家(이에)는 가족(Family)과 기업경영(Business Enterprise)을 조합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오미(近江)상인의 경영에는 공동기업의 원류라 할 정도의 경영형태도 나타났다. 1741년(寬保 元年)부터 1755년까지의 14년간에 걸쳐 현재 북해도 지역의 松前(마츠마에)藩의 나가사키(長崎)무역을 위임받은 야하다(八幡)상인 니시가와 덴시(西川 伝治)는 외면적으로는 개인기업 이었지만 21인의 오미상인으로부터 출자를 받았다.

따라서, 니시가와는 무한책임사원이었고 다른 다수의 출자자는 이익의 배분에만 관심 있는 유한책임사원의 역할을 하였다.⁵⁰⁾ 또한 1813년(文化10년) 오사카의 吳服問屋 稻西商店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미의 稻本利右衛門과 西村重兵衛의 두 사람이 같은 금액의 출자를 한 공동기업 이었다.⁵¹⁾ 특히 출자비율과 경영자와 투자가의 분리가 있었으며 출자자와 독립한 상점으로서의 기업체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기업체의 성립을 유한책임적인 무기능자본가를 포함한 자본결합이 아니고 출자와 지배에 있어서 무한책임의 기능자본가들의 당좌적 결합 형태로 보는 일종의 합병회사의 실제적인 선구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론⁵²⁾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50) 原田敏丸, 「近江商人の経営形態に関する一考察-日野の豪商中井源左衛門家の場合」, 『秋山 範二先生選歴記念論文集』, 1956-12.

51) 西村太三郎, 『懐古録』(稻西合名会社), 1937년

52) 油井常彦, 「国会社企業の先驅的形態」, 『経営論集』, 第10卷4号, 1963년

경영과 출자의 분리라는 점에서 合資会社の 전신인 코멘다(commenda)적 출자와 비슷한 일종의 익명조합으로 보는 견해⁵³⁾로 보고 있다.

에도시대의 일본에서는 기업의 명칭(상가명)은 타국과 비교해보면 안정성과 영속성을 중요시 하였고 기능적 실체로서의 이에(家)가 중시되었다. 즉, 家(이에)는 하나의 경영활동체로서의 이에(家)로서 혈통보다는 기능의 중요성이 중시되었으며 상가의 당주는 선조로부터의 후계자뿐만 아니라 자산의 유지 증대를 위한 관리자로서의 능력이 요구되었다.

즉 일본에서는 기업과 가정을 나누어 볼 경우에는 상가에서는 기업 쪽의 비중이 크고 생활을 하는 일반가족으로서의 家(house)로 불리는 영속적 경제주체에 종속, 봉사하여야만 하는 존재로서 인식되었다.

이처럼 상가의 경영은 이에(家)라는 관념을 기초로 하여 영속적 개념으로서의 가업(家業)이 영위되었다. 여기에서는 계보적 연속성이 중시되어 가업의 전통과 신용의 상징으로서의 노렌(暖簾)⁵⁴⁾이 존중되었다. 또한 구성된 분가 및 별가(친족·비친족)는 가장과 자식의 관계로서 主家(본가)의 존속과 번영의 공헌을 의무로 함과 동시에 분가를 생활의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이 노렌을 중심으로 본가, 분가(친족분가) 별가(奉公人 분가)라는 상가의 동족단을 구성한다.

봉공인의 귀속의식과 봉사에 대한 본가의 노렌와케(暖簾分け, 노렌분리)한 별가는 고용상의 역할, 지위등의 신분계급을 나타내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데치제도(丁稚制度)를 통해 양성된다. 이처럼 가업으로서의 상가경영은 노렌과 별가제도, 데치제도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통주의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2) 상가경영과 의제적공동체 分가와 別家の 등장

상가의 별가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중세의 무사가 부하나 후배의 자식을 친자와 똑같이 양육시켜 所領(토지)을 나누어 주는 습관이 있었는데 상가에서도 非혈연자를 대가족에 포용하는 정신으로 이어져 에도시대의 상가에 까지 계승되어져 별가제도로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⁵⁵⁾ 이것은 의제적(擬制的)혈연의 제도로써 도시에서의 동족집단의 사례로 꼽히는 親方(오야가타)와 子方(꼬가타)관계의 도시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별가제도는 근세이후에 주로 상가에서 분가에 대한 존속과 번영을 위한 제도로 변질

53) 江頭恒治, 『近江商人中井家の研究, 雄山閣』, 1965.

-----, 『共同企業源流考』, 『産業經濟論叢』, 第1. 2号, 1966年

54) 상점의 입구의 처마끝 이나 점두에 치는 막이나 상점의 신용을 지칭한다.

55) 中川敬一郎 (1981) 「經營理念の國際比較- その歴史的考察」 同著 『比較經營史序説』 東京大学出版会, p138.

되면서 상가에서만 사용되는 제도로 발전되었다. 본 절에서는 상술한 정의를 중심으로 고노이케(鴻池)가 와 미즈이(三井)가 의 별가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고노이케(鴻池)家の 경우는 오사카에 本家, 分家, 別家가 집중되어 있어 그 규모면이나 조직 면에서 전국적 규모로 까지 성장하지는 못했다. 오사카상인 고노이케 그룹의 창시자인 야마나카 유키모도 (山中幸元, 鴻池新六) 는 부친인 山中幸盛 의 사후, 무사 계급을 버리고 摂津国川辺郡(지금의 兵庫県伊丹市)에서 1600년 주조업(酒造業)을 시작하여 오사카로 이주하여 에도시대 이후의 거상인 고노이케(鴻池) 재벌의 시조가 되었다. 둘째아들인 善兵衛와 셋째아들인 又右衛門은 1615년과 1617년에 오사카에서 각각 분가로서 주조업을 시작하였다.

고노이케 신로쿠 (鴻池新六) 도 1619년에 오사카에 양조를 하는 한편 주류판매의 점포를 열었지만 고노이케의 분가는 7번째 아들인 新右衛門 가 물려받고 오사카점포는 8남 善右衛門正成이 상속하였다. 이 正成(마사나리)이 고노이케 재벌의 초대총수로 칭해지고 있다.⁵⁶⁾

고노이케家の 분가는 초대 正成(善右衛門.1608 -1693年)의 형제에 3개(善兵衛, 又右衛門, 新右衛門)의 분가, 2대 之宗 (1648 -96年)의 형제에 2개(四郎右衛門, 山中新七(正成의 차녀 이시의 양자분가)의 분가 가 있었으며 3대 宗利 (1667-1736년)의 형제는 분가가 없었다. 그리고, 4대 宗貞 (1699 -1745年) 의 형제에는 2개의 분가(新六, 右四郎) 5대 宗益 (1717 -1764年)에는 1개(善八는 4대 宗貞의 장녀 이요의 양자분가)의 분가를 6대 幸行(1744-1795년)형제에는 1개(善右衛門 5대 宗益의 차녀 니호의 양자분가)로 되어 있으며 7대 幸榮 (1767 -1804年) 이후에는 분가가 전혀 창출되지 않았다.⁵⁷⁾

고노이케(鴻池)家の 동족기업은 분가가 축적한 자본의 일부분을 本家が 아닌 친척들에게 부여하는 分家和 가문과는 관계없지만 봉공인으로 장기간 근무한 사람에게 자본을 부여하는 別家가 존재한다. 그러나 초기에는 分家和 別家에는 가업을 인정했지만 享保期 (1716 -1735年)이후에는 동족 자본의 분단을 방지하기 위해 분가를 중심으로 한 동족자본의 집중을 피하기 위해 분가와 별가의 창출 및 자립성에 대해 강한 제약을 가하기도 하였다.⁵⁸⁾

고노이케家は 테다이(手代)부터 승진하여 별가가 허락되며 그 후 약 10여년간 근무하면 별가의 家業 이 인정되었다는 관행이 있었으며 享保期 에는 상당수의 봉공인이 별가 가업의 경영주체가 되었다. ⁵⁹⁾

미즈이(三井)家を 일으킨 三井高利(미즈이 다카도시, 八郎兵衛)가 松坂에서 에도로 와서 에치고야 포복점(吳服店)을 개업한 것은 1672-73년(寛文12-13년)이다. 1686년(貞

56) 宮本又次, 『鴻池善右衛門』, 吉川弘文館, 昭和33年, pp102-123

57) 安綱重明, 『日本資本制の 成立過程』, ミネルブア書房, 1970年, p138

58) 安綱重明, 『“財閥形成史の研究”』, ミネルブア書房, 1970年.

59) 安綱重明, 「享保期鴻池別家の自分家業制度」, 『同志社商学』, 17券1号, 同志社大学商学会. pp.72-85, 1965.

후3년) 까지 에도 교토에 환전점을 개업하고 교토에 본거지를 두어 1690년(元祿 초기) 까지 막부의 어용으로 포목조달 과 금은 환전업을 명받아 오사카에까지 지점을 내어 3도에서의 어용상인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⁶⁰⁾

미즈이家は 포목점 9점포, 환전업과 생사견직물취급 5점포 그리고 목면과 지폐의 발행을 하는 마츠자카야(松坂屋)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3개 부문을 총괄하는 조직, 즉 오모토가타(大元方)라 불리는 본부가 있었다.⁶¹⁾ 오모토가타 에서는 미즈이 일족의 공유재산관리와 모든 사업을 총괄하였다. 미즈이 다카도시(三井高利)는 처음에는 마츠자카(松坂)에서 전당포와 술집을 경영했지만 에도에 포목점을 낸 것을 계기로 크게 성장했다. 그래서 미즈이家の 사업에서 중심이 되었던 것은 포목점관계의 9점포였다. 9점포는 교토본점, 에도본점, 오사카본점과 에도의 2점의 포목점, 교토의 2점의 포목점, 교토의 베니아(화장품점), 에도의 이토야(糸屋)등이다. 이것들은 에치고야(越後屋)로 불렸다. 미즈이 다카도시가 처음에 에도에 출점한 이름을 계승한 것이다.

미즈이(三井)家에서는 장기간 근무하고, 또한 공적이 있는 사용인(봉공인)에 대해서는 봉공인들에게 같은 상호의 점포를 내는 것을 허가하는 노렌와케(暖簾分け)제도를 설치하여 에치고야(越後屋)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별가의 대우를 주었다.

中井信彦(1966)에 의하면 미즈이家에서 사용인의 채용, 대우, 교육, 퇴직 등에 관한 제도의 정비에 착수한 것은 1690년경이며 데치(小僧)상좌, 테다이(手代)등의 11계급정도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의 과장급에 해당되는 히라 테다이(平手代, 平役)이상 근무하고 원만히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상호와 프랜차이즈 형태인 노렌지루시(暖簾印)가 오모토가타로 부터 주어졌다고 한다. 미즈이家 로서는 이에(家) 즉, 가업의 존속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경영자로서 후계자를 양성할 뿐 아니라 그를 보좌할 반토, 테다이 등의 가업의 실습경험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오모토가타는 미즈이 동족의 공동재산의 관리조직자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동족조직에 의한 자본의 분산을 저지하였으며, 大坂, 京都, 江戸의 세도시의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강조되었다. 또한 미즈이家は 자산의 공유제도에 의해 자산이 분리되고 세분화되는 것을 피하고 있다. 그리고 무능력하거나 품행이 나쁘거나 이에(家)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자는 이에에서 배제하였다. 그리고 차남이하를 別家로 해서 미즈이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고노이케와 미즈이의 상가의 변형을 보면 본가뿐만 아니라 별가 제도를 통한 세력 확대와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안정적고용관계가 이루어졌다. 에도시대의 점주와 봉공인과의 관계는 맹목적이라 할 만큼 충성이 필요했으며 또한 가업의 존속을 위해 별가제도 라는 의제적 동족단을 만들어 냈음을 알 수 있다. 봉공인은 어

60) 藤田真一郎他 『日本商業史』 有斐閣,1978,p145.

61) 中井信彦, 「三井家の経営—使用人制度とその運営—」, 『社会経済史学』,1966. 第31卷6号

릴 때의 데치(丁稚)의 시대부터 장기간 근속을 통한 충성으로 별가가 되어 주인의 의 제적 가족으로서 대우받는 것을 꿈꾸며 이에(家) 에 충성을 다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흐름은 일본적경영의 특징으로 이어지는 연공서열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6. 끝맺는 말

본 논문은 前공업화시대 (pre-Industrial era) 또는 前근대화시대(Pre -Modernization era)의 상인정신의 역할과 변화 가 기업가정신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근세일본의 상인의 등장과 상가경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왔다. 근세일본에 해당하는 에도시대의 상업은 노부나가의 樂市樂座로 시작되어 발전하게 되었고 막번제의 특징인 城下町로 인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조카마치의 계층적 유형구조는 상가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시기의 상가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기업가정신의 발달로 거대상가로 발전하여 원시적형태의 공동기업 즉, 익명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족적 공동기업을 운영되기도 하여 고노이케(鴻池)나 미즈이 (三井)재벌처럼 강한 동족집단경영이 등장한다.

에도시대의 상가는 일종의 합명회사의 선구적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론과 합자회사의 전신인 코멘다(commenda)적 출자와 비슷한 일종의 익명조합으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지지만 조선과 중국등의 국가와 비교해보면 가업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중요시 기능적 실체로서의 家(house)가 중시되었다.

다시 말하면 家(이에)는 하나의 경영활동체로서 혈통보다는 가업의 기능이 중시되었으며 상가의 당주는 선조로부터의 후계자뿐만 아니라 가산(家産)의 유지를 위한 관리자로서의 능력이 요구되었다.

또한 상가(商家)는 기업과 가정으로 나누어 져 있지만 상가는 기업의 비중이 크고 생활을 하는 가족으로서 영속적 경제주체에 종속, 봉사 하여야만 하는 존재로서 인식되었다. 이처럼 상가의 경영은 이에(家) 라는 관념을 기초로 하여 영속적 실체로서의 가업(家業) 으로서 중시되었다. 특히 일본의 상가에서는 계보적 연속성이 중시되어 가업의 전통과 신용의 상징으로서의 노렌(暖簾) 이 존중되었는데 친족, 비 친족으로 구성된 별가는 가장과 자식의 관계로서 본가의 존속과 번영의 공헌을 의무로 함과 동시에 본가를 생활의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이 노렌을 중심으로 본가, 분가(친족분가) 별가(奉公人분가)라는 상가의 동족단을 구성한다.

일본적경영의 특징이라 일컬어지는 년공서열과 집단주의적 의사결정은 상가의 발전에서 보면 전공업화시대인 근세의 상가에서부터 등장하였던 것이고 에도시대의 점주와 봉공인과의 관계는 별가제도를 통해서 의제적(擬制的) 동족단을 만들어 냈다. 적어도

내부적 관리제도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적경영의 특징의 한 요인으로 일컬어지는 非혈연자의 후계자 선택은 의제적 동족단을 이용하여 가업을 계승하는 것으로 근세의 상가에서 계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參考文獻】

- 박경수(1996), 「일본 근세 상인자본의 연구」, 『일본역사연구』 제3집.
 이덕훈(1993), 「江戸시대의 상인발달과 상인정신에 관한 연구」 『한일경상논집』, 제9권. 한일경상학회.
 -----(2013), 「중세일본의 상인의 등장과 樂市樂座」, 『일본문화학보』, 제56집. 한국일본문화학회.
 中井信彦(1996), 「三井家の経営—使用人制度とその運営—」, 『社会経済史学』, 31(6).
 松平定能(1814), 『甲斐国誌』, 1814年 (文化11).
 江頭恒治(1965), 『近江商人中井家の研究』, 雄山閣.
 江頭恒治(1996), 「共同企業源流考」, 『産業經濟論叢』, 1(2).
 宮本又次(1958), 『鴻池善右衛門』, 吉川弘文館,
 -----(1971), 『概説日本商業史』, 大原新生社,
 -----1997), 中川敬一郎 監修 『江戸時代の企業者活動』, 日本經濟新聞社.
 -----(1998), 『近世日本の市場經濟—大坂米市場分析』, 有斐閣.
 宮本又郎, 阿部武司, 宇田川勝(2007), 『日本經營史: 江戸時代から21世紀へ』, 有斐閣,
 宮本又次·作道洋太郎·森泰博(1970), 「近世初期の大坂における米穀流通—蔵屋數研究の予備 作業として—」 『大阪の研究』 第4卷. 清文堂.
 吉田信之氏(2001), 「城下町の構造と展開」 『都市社会史』 山川出版社,
 大谷瑞郎(1973), 『幕藩体制と明治維新』, 亜紀書房,
 本庄栄次郎(1940), 「米遣いの經濟」, 『日本經濟史辞典』, 日本評論社.
 彬森玲子(1968), 「近世日本の商人と都市社会」, 東京大学出版会 2006, 羽仁五郎 『都市の論理 歴史的條件—現代の闘争』 勁草書房.
 西村太三郎(1937), 『懷古錄』 稻西合名会社.
 石田 一良(1961), 『町人文化—元禄·文化·文政時代の文化について』, 日本歴史新書,
 深井 甚三(1995), 『近世地方都市と町人』, 吉川弘文館.
 安岡, 重明(1965), 「享保期鴻池別家の自分家業制度」, 『同志社商学』, 17券1号, 同志社大学商学会
 安綱重明(1970), 『財閥形成史の研究』, ミネルブア書房.
 -----(1970), 『日本資本制の 成立過程』, ミネルブア書房,
 安野真幸(2009), 『樂市論—初期信長の流通政策』 法政大学出版局.
 宇佐美隆之(1999), 『日本中世の流通と商業』 吉川弘文館.

- 原田敏丸(1956), 「近江商人の経営形態に関する一考察-日野の豪商中井源左衛門家の場合」. 『秋山範二先生還暦記念論文集』, 12.
- 油井常彦(1963), 「国会社企業の先駆的形態」, 『経営論集』, 10(4).
- 作道洋太郎(1981), 「近世大阪町人学の系譜と特質:懷徳堂学の再興」, 『大阪大学史紀要』
作道洋太郎(1986) 外, 『日本経営史』, ミネルブア書房.
- 中部よし子(1974), 『近世都市社会経済史研究』, 晃洋書房, 48-49.
- 池享(2003), 『日本の時代史 (13) 天下統一と朝鮮侵略』, 吉川弘文館.
- 脇田修(1987), 『織田信長—中世最後の覇者』, 中央公論社, 72-77.
- J. ヒルシュマイヤー(1986), 由井常彦, 『日本の経営発展—近代化と企業経営』 東洋経済新報社, 54.
- B.M. Richman(1965), Significance of Cultural Variabl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December.
- Christos Kalantaridis(1998), Entrepreneurship Beyond the Entrepreneur: A Veblenian Approach,. Committed To A Better Worldwide Understanding of the Smaller Business. Enterprise. 1998 ICSB Singapore Conference. Proceedings.
- F.H Harbison and C.A. Myers(1967), Management in Industrial World.
- Franco Amatori, Andrea Colli, Nicola Crepax(2002), Entrepreneurs & Managers ,International Colloquium jointly organized with ASSI for the Centennial of Università Bocconi PROGRAMME OF THE COLLOQUIUM 10-11 October.
- Franco Amatori,Andrea Colli(2011), Business History: Complexities and Comparisons. London: Routledge.
- George Filipetti(1953), Industrial Management In Transition, Irwin.
- Jacob Price(1992), Perry of London: A Family and a Firm on the Seaborne Frontier (Harvard Historical Studies) Harvard University Press.
- James L. McClain, Wakita Osamu(1999), Osaka: The Merchants' Capital of Early Modern Japan, Cornell University Press.
- John W. Hall(1981), Nagahara Keiji and Kozo Yamamura, Japan Before Tokugawa, princeton University Press, 359-361.
- Madeleine Zelin(2006), The Merchants of Zigong: Industrial Entrepreneurship in Early Modern Chin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6
- N.S.B. Gras(2010), Business and Capitalism: An Introduction to Business History, Beard Books'
- N.S.B. Gras(2003), An Introduction to Economic History , Biblio Bazaar.
- Richard Grassby(1995), The Business Community of 17th century England, Cambridge.

- Ho Ping-Ti(1954), "The Salt Merchants of Yang-chou: A Study of Commercial Capital in Eighteenth-Century China,"*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17: 130-168.
- Sidney Pollard(1968), *The Genesis of Modern management*, Penguin edition, 131-40.
- Tetsuji Okazaki(2004), "The Role of the Merchant Coalition in Pre-modern Japanese Economic Development: An Historical Institutional Analysis," CIRJE F- Series CIRJE-F-284, CIRJE, Faculty of Economics, University of Tokyo.
- Ross A. Webber(1969), *Culture and Management : Text and Readings in Comparative Management*, Irwin Inc.

要 旨

Traditional modes of business and management in Edo period played the role as preconditions in modernization process of Japan. Those business customs exhibit a strong connection with the country's history. The legendary commercial capital of the modern businesses led the way to the emergence of some business magnates. Their capital contributed a great deal to the modernization of Japan. In addition, the respect for business was compatible with the culture and traditional value systems of Japan, which also conduced to the modernization process. Meanwhile, premodern business customs has been transmitted to the contemporary business world of Japan. This research covers the meaning, behavior patterns, and systemic development of merchant's family in Edo period of Japan.

Key Words : Traditional modes, Business customs,
Merchant of Edo period, Pre-modern of Japan,
Merchant's family.

투 고 : 2014. 2. 28
1차 심사 : 2014. 3. 15
2차 심사 : 2014. 4. 5